박지원, 국민의당·더민주서 '러브콜' … 무소속 완주 최대 변수

새누리 박석만 후보 젊은 패기로 도전

더민주 언론인 조상기 예비후보 등록

국민의당 유선호·배종호 '바꿔' 바람 기대

무소속 박지원·김한창·송태화 출사표

■ 누가 뛰나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름	**박석만**	**조상기**	**배종호**	**유선호**	**박지원**	**김한창**	**송태화**
나이	50	66	54	62	73	43	54
약력	·전) 국정원 근무 ·전) 로펌 H&P 상임고문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전) KBS 이사	·전) KBS 뉴욕 특파원 ·현) 세한대학교 초빙교수	·전) 18대 국회법사위원장 ·전)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	·전) 김대중대통령 청와대 공보수석 ·전) 14·18대 국회의원	·전) 국민권익위 상근 전문위원 ·전) 행정부 공무원 노조정책연구소장	·전) 녹색연합협회 목포지회장 ·현) 제이앤컴퍼니 대표이사

전남의 정치 1번지인 목포의 총선 구도는 '박지원 변수'에 크게 출렁이고 있다. 4선 고지에 도전하는 박 의원이 야권 통합을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목포의 총선 구도가 더민주-국민의당-무소속의 3각 경쟁 구도로 형성된 셈이다.

지난 18일 박 의원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 결과도 목포 총선 구도를 뒤 흔들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이 대법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아 총선 출마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꽤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법적·정치적 족쇄를 풀어낸 박 의원은 무소속임에도 총선 행보에 가속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의 무소속 완주 여부는 목포 총선에서의 최대 변수다. 박 의원이 무소속 완주 의지를 보이면서도 '정치는 생물'이라며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이에, 호남 주도권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박 의원 영입을 위한 물 밑 러브콜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박 의원이 무소속 완주 대신, 특정 정당에 합류한다면 목포 총선 구도는 다시 한 번 요동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박 의원에 대한 목포 민심의 정치적 피로감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가 무소속으로 완주한다면 더민주-국민의당 후보와의 팽팽한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지금껏 목포 지역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 단 한 사람도 3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박 의원이 이를 넘어설 것인지도 관심사다.

정의당 서기호 후보가 지난 26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변수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후보가 16.29%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목포의 진보성향 표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의당에서 대체 후보를 내세우겠지만 과연 진보성향 표심 결집이 기대만큼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국가정보원 출신의 박석만(50) 예비 후보가 나서고 있다. 박 후보는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목포를 바꿔 내겠다며 바닥을 다지고 있다. 순천·곡성의 이정현 의원과 비례대표인 주영순 의원 등의 활약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지역 정서도 예전 같이 나쁘지는 않다는 점도 그에겐 힘이 되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014년 목포로 하방, 청년 유권자 연맹을 창설하고 지역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나서는 등 나름 탄탄한 조직을 가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영배 예비 후보가 지난 22일 사퇴하면서 경선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은 박 예비후보가 목포에서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민주**=한겨레신문 편집국장 출신인 조상기(66) 예비 후보가 나서고 있다. 제1야당 예비 후보로 단 한 사람만이 등록했다는 점은 아직은 더민주에 싸늘한 목포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더민주의 지지율이 점차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조 후보의 총선 가도에도 봄 바람이 불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는 경향신문 기자로 시작, 지난 80년 신군부의 검열철폐 등을 요구하다, 강제 해직된 바 있는 해직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이어 평화방송과 한겨레신문, KBS 등에서 근무하며 언론인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타 정당 후보에 비해 인지도 측면에서 취약점이 있으나 목포고 인맥 등을 바탕으로 지역민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목포를 정치도시에서 경제·문화도시로 바꾸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목포를 서남권 개발의 핵심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선보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 예비 후보인데다 강직한 성품의 언론인이라는 점에서 추후 상승세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유선호(62) 전 의원과 배종호(54) 전 KBS 기자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이들은 박지원 의원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호남 혁신 정치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포에서 그동안 3선 의원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그 만큼 목포 민심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목포 민심 저변에 보이지 않는 '바꿔'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는 총선 막판, 민심의 태풍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3선 의원 출신의 유선호 예비 후보는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목포에서 불태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경기도 정무부지사, 청와대 정무수석, 3선 국회의원 등 스펙도 화려하다. 그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에 검증된 정치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정직한 정치로 정체된 목포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포에서 그동안 3선 의원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그 만큼 목포 민심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목포 민심 저변에 보이지 않는 '바꿔'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는 총선 막판, 민심의 태풍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3선 의원 출신의 유선호 예비 후보는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목포에서 불태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경기도 정무부지사, 청와대 정무수석, 3선 국회의원 등 스펙도 화려하다. 그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에 검증된 정치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정직한 정치로 정체된 목포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포에서 그동안 3선 의원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그 만큼 목포 민심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목포 민심 저변에 보이지 않는 '바꿔'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는 총선 막판, 민심의 태풍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3선 의원 출신의 유선호 예비 후보는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목포에서 불태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경기도 정무부지사, 청와대 정무수석, 3선 국회의원 등 스펙도 화려하다. 그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에 검증된 정치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정직한 정치로 정체된 목포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포에서 그동안 3선 의원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그 만큼 목포 민심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목포 민심 저변에 보이지 않는 '바꿔'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는 총선 막판, 민심의 태풍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와 호남 정치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박 의원은 야권의 위기 상황에서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야권 통합을 통한 정권 창출의 '꿈'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야권 분열 구도에서의 호남 정치의 복원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더민주를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궁극적으로 분열된 야권의 통합과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 측에서는 목포 민심이 이미 당을 떠나 '박지원 역할론'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 의원이 야권의 통합과 정권 창출을 위한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목포 민심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그는 매일 20~30개의 일정을 소화하며 목포 바닥을 다지는 등 치열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국제도시 목포 기반 건설, 무안반도 통합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교육 의료산업 특구 추진, 구도심 재생, 레저 해양스포츠 관광 특화 항만 개발 등 굵직굵직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출신의 김한창(43) 예비 후보도 무소속으로 목포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목포 경제의 몰락을 지적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며 목포를 이민시범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김 예비후보는 중국 단체여행객을 국내로 보내고 있는 중국 여행사와 '목포에 연간 30만 명 중국 관광객 유치 정책협약'을 맺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녹색연합협회 목포지회장 출신의 송태화(54) 예비후보도 무소속으로 총선에 나선다. 송 후보는 '여당도, 야당도, 정치판도 갈아보자'는 구호 아래 목포 서민과 노동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청년과 노년의 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입 접촉에 박지원 "정치는 생물"

지역구 3선 의원 탄생여부도 관심

■ 관전 포인트

목포 총선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박지원 의원의 무소속 완주 여부다.

더민주가 제1야당의 저력을 보이고, 국민의당이 바람을 탄다면 무소속의 박지원 의원과 팽팽한 삼각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박 의원은 무소속 출마 의지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한 편으로 '정치는 생물'이라며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아직 유동성이 있다.

박 의원이 더민주나 국민의당에 합류한다면 목포의 총선 구도는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합류한 정당의 예비 후보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나 국민의당 지도부 일부 인사들은 박 의원 영입을 위한 물 밑 접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접는다면 더민주보다는 국민의당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야권 통합을 명분으로 더민주를 탈당, 무소속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그만한 정치적 명분이 마련되기 전에는 특정 정당의 합류는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목포가 그동안 지역구 3선 국회의원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박 의원이 이를 넘어설 것인지도 관심사다. 그만큼 전남의 정치 1번지인 목포 민심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15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등원한 뒤, 목포에서 18·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목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박지원 의원의 아성이 크고 단단하지만 무소속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선거 판세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결국, 박 의원의 무소속 완주 여부가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야당의 정신적 고향 … 신도심 유입 인구 많아

■ 선거구 특징

목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만큼 야성(野性)이 강한 선거구다. 이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이 가신(家臣)으로 꼽히는 권노갑 전 의원과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이 재선을 한 곳이기도 하다. 이들은 평균 80%이상의 득표율을 올렸으며, 16대 총선에서 김홍일 전 의원이 91.80%의 득표율을 올리기도 했다.

17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바람으로 '열린우리당'이 광주와 전남에서 돌풍을 일으키긴 했지만, 목포 선거구에서는 새천년민주당의 이상열 후보가 당선되는 등 '민주당'의 정신적 고향으로 꼽히는 선거구다.

목포 선거구는 15대 신안과 합쳐져 목포 신안 갑·을, 2개 선거구로 쪼개지기도 했지만, 16대 총선에서부터 목포시만 단독 선거구로 분리됐다. 하당 등 신도심이 들어서면서 인근 영암과 해남, 무안, 신안에서의 인구 유입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